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참스승께

# 고맙습니다, 선생님

발행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 · 775 · 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 2018.04.05

발행인 ·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 흥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흥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 최연주

인쇄 · 정민문화사

ISBN · 978-89-85648-69-1 43810 :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9915

1.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총 179편 중 38편을 선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2. 각 원고는 분량에 맞추고자 2,000자 내외로 편집되었으며, 편지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 학년, 이름)은 2017년 7월 공모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목  
차



발간사	8
심사평	10
내 사랑 올보 아빠	14
내 친구 손승희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16
귀한 생명을 두번이나 주신 부모님께	19
따뜻한 등지가 되어주신 할머니께	22
사랑하는 아빠에게	25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교장선생님께	28
천장에 있던 한 끈을 끊어주신 당신께	34
마음 속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께	37
제 2의 엄마 임지향 선생님께	40
매일 왕복 300km 등·하교를 뒷바라지하는 고마운 부모님	44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김미미 선생님께	48
나의 힐링타임, 나의 자부심	51
나에겐 엄마가 1순위에요	58
선생님의 칭찬 속에 제가 커가요	60
약속 꼭 지킬게요!	63
마음 속 꽃샘추위를 녹여주신 차영주 선생님께	66
매서우면서도 온화한 두 갈래 바람	70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73

- 80 이제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 83 나의 스승, 나의 친구
- 87 나의 수호천사, 나의 슈주쌤
- 90 마라톤 42,195페이지
- 94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
- 98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 104 번호를 정할수 없는 0순위
- 106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 110 인생의 멘토
- 114 빨간 분필, 파란 분필, 노란 분필, 흰 분필
- 118 마흔 넷 나의 친구
- 121 네가 하고 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 126 일상을 꿈꿔요
- 130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게요
- 134 응원의 망고주스
- 137 꽃길만 걸어요
- 140 선생님의 마법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 144 저에게 하신 투자 꼭 돌려드릴게요
  
- 150 카반다나 선생님께
- 152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



# 발 간 사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참스승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선물이자 행운입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만큼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참스승의 유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017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펼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60,005건의 편지에는 참스승이 되어준 부모님과 선생님과 소중한 추억과 감동이 담겨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부재, 무너진 교권, 그리고 청소년 범죄 등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 앞에 마음이 무겁지만, 참스승을 통해 올바른 삶의 지표를 찾고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밝은 희망을 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또는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글로 표현하면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일상에서 놓쳤던 행복의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학업성취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 아이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요즘의 한국 아이들에게 어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가꾸고 키워주는 일이 아닐까요. 초·중·고 청소년의 올바른 삶과 인성함양을 위해 시작한 재단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이 아이들에게 감사와 배려, 상호존중의 마음을 키워주고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의 소통 활성화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청소년은 물론, 이들이 '감사편지'를 쓰도록 관심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평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몰라요’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통해 ‘몰라요’가 ‘고맙습니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6만 명 학생들의 입을 통해 6만 번의 ‘몰라요’가 6만 번의 ‘고맙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6만 명의 ‘고맙습니다’를 들은 또 다른 6만은 더 많은 감사의 말들을 전달하겠지요. 이 작은 기적을 목격하고 이 행사에 참여해 <고맙습니다>의 답례를 할 수 있어 심사위원장인 저 역시 무척이나 기쁩니다.

심사를 위해 주제의 적합성, 진실성, 충실성 그리고 참신성 4가지 기준으로 편지를 평가하긴 했으나 부모님과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에는 높고 적음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2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고맙습니다, 선생님>에 수상한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공모전에 참여한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은 작은 것에 머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점차 커져 자연으로 사람으로 사회로 퍼져 나가겠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공모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잠시 놓쳤던 행복의 순간을 되찾고 마음에 행복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공모전을 위해 애써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 및 MBC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스승 존경 문화를 사회에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이 어 령

대한민국의 전 문화부장관, 대학 교수, 소설가이자 작가 겸 저술가, 사회기관단체인 겸 사회운동가, 정치가, 문학평론가, 시사평론가이다.

# 1

내 사랑 울보 아빠

부산 신평초등학교 1학년 김슬

내 친구 손승희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충북 어상천초등학교 5학년 김예진

귀한 생명을 두 번이나  
주신 부모님께

서울 창일중학교 1학년 정수현 (가명)

따뜻한 등지가  
되어주신 할머니께

인천 연평고등학교 1학년 고성현

사랑하는 아빠에게

경기 신기초등학교 6학년 유예진 (가명)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교장선생님께

부산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장지영

그냥 같이, 뭐든지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저에겐 친구 같았어요.



# 내 사랑 올보 아빠

아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아빠 마음이 아프셨죠? 제가 심장이 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축복송 부르면서 울었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저도 그 노래 들어봤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빠, 저를 위해 노래 불러 주시고 울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귀가 안 들려 인공와우 수술할 때는 길에서도, 운전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우시고, 회사에서도 우셨죠. 올보가 된 우리 아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빠에게 ‘왜 저는 인공와우를 해야 해요?’라고 여쭙했을 때 아빠는 대답하셨어요. “슬아 아빠 눈이 나빠 안경 쓰는 것처럼, 우리 슬아도 귀가 잘 안 들려 인공와우를 하는 거야. 슬아랑 아빠랑 똑같지.” 저는 아빠 말씀이 정말 감사했어요. 아빠 안경과 제 인공와우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인공와우를 하고 ‘아빠’라고 말할 때 아빠는 우셨어요.

사랑하는 아빠, 저는 이제 알아요.

아빠가 왜 우시는지 알아요.

저를 사랑해서 우시는 거지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안아 주시고 저를 위해 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보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내 친구 손승희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2년은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학교 연못가에 살구 꽃잎이 눈처럼 내려오면 또 한 학년이 지난 걸 알게 됩니다. 정신없는 3월이 끝나니 문득 5학년이 된 걸 이제야 실감합니다. 3학년이 되던 첫날, 여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저희 반은 남자만 다섯 명이고, 여자는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냥 여자여서 좋았었습니다. 혼자 노는 게 너무 싫었으니까요.

선생님이 같이 거울 보며 머리 빗겨 주실 때 가슴이 따끔따끔, 기분이 묘하게 뽀로롱 좋았어요. 그땐 아무 말도 못 했지만요. 벽지학교엔 늘 남자 선생님만 많았는데, 선생님처럼 긴 머리 여자 선생님이 웃으며 반겨주셔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졌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혼자 서성이며 보내던 학교에서 다들 저를 소심하고 말수도 적어서 화난 애 같다고 놀렸었는데, 선생님과 2년을 보낸 후 이젠 저희 학교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되었어요.

선생님과 떠난 산속 모험도 기억나요. 송사리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투덜거렸던 날도요. 메뚜기 잡겠다고 논둑을 달려 다니기도 했죠. 그냥 같이, 뭐든지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 저에겐 친구 같았어

요. 드디어 나에게도 여자 친구가 교실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비밀 얘기도 살짝살짝 하면서 아주 친해졌는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신다니 전 또 혼자가 될까 벌써 속상해져요. 그냥 이 학교에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만든 떡볶이 사실은 완전 맛없었어요. 선재도 그런 맛은 절대 평생 못 잊을 거겠어요. 하하하. 하지만, 전 그냥 좋았어요. 양파 깔 때 울면서 웃는 선생님의 모습이 오래오래 생각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웃겼는데 왜 저도 울었을까요?

‘예진아! 김예진!’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귀에서 멍멍 돌아다녀요. 편의점이 없는 시골이라 시내 갈 때면 사다 주시던 편의점에서만 파는 젤리꼬마 햄버거, 고 녀석이 제일 맛있었고요. 어른 체험이라시며 끓여 주신 불닭볶음면은 우아! 절대로 못 잊죠! 미워! 눈싸움, 물총놀이 할 때 저희가 선생님만 공격해서 빠치신 건 아니시죠? 선생님이 제일 힘이 세셨잖아요. 그래도 늘 화도 내지 않으시고 웃기만 하시는 선생님은 완전 좋은 친구였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말수도 많아지고, 많이 웃게 되었다고 선생님께

# 귀한 생명을 두 번이나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대요. 그런데요. 전 그냥 선생님이 친구라서 감사해요. 아침마다 재잘재잘 이야기 나누었던 2년이 꼭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 이젠 제 담임선생님도 아니시고,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었지만요.

선생님! 꼭 다시 만나요.

늘 시무룩하던 예진이가 이젠 여자 깡패가 되었으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감사했고 늘 사랑합니다.

김예진 · 충북 이상천초등학교 5학년 ·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수현아,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자! 그래야 힘이 쑥쑥 생겨서 집에 빨리 가지. 집에 가면 엄마가 커피 한 사발 타 줄게! 알았지?”

“우와! 진짜로?”

“그럼~ 아!”

안녕하세요. 부모님 덕분에 귀한 생명 두 번이나 얻은 딸 수현이에요. 시간도 추억은 뺏어가지 못하나 봅니다. 제가 항암치료 받으면서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로 하셨던 이 말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절대 지워지지 않네요.

너무나도 괴로워서였을까요? 엄마가 처음 제 백혈병 발병 소식을 들으셨을 때 평평 우셨잖아요. 그런데, 6살이었던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엄마께서 왜 우시는지, 왜 우리 집안 분위기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있는지요. 급히 아빠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며칠 후에야 전 깨달았습니다. ‘아! 난 감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구나!’ 라고요. 제가 다니던 유치원도, 배웅하며 잘 갔다 오라고 손 흔들어 주시는 엄마의 손짓도,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모두 그리웠습니다. 병원 안 창문에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고, 넘치던 에너지와 탐스



러웠던 머리카락은 점점 사라져만 갔으며, 손에는 인형 대신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냈습니다. 제 곁엔 언제나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하루는 그런 날이 있었죠. 무균실에 들어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김없이 밀었을 때, 아빠께서도 저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오셨죠. 밥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우리 밥 많이 먹고 누구 머리가 더 빨리 자라나 시합하자고 하시면서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처음으로 창피함을 느꼈던 제게 아빠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또,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하루에 3시간만 선잠을 주무시며 저를 간호해 주시던 엄마! 제 앞에선 강한 척하시고 뒤돌아서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정말 살아갈 목표도, 희망도,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고 불행과 슬픔만이 존재했던 제 삶 속에서 부모님께서 제 삶의 반짝이는 별이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옆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동굴 속같이 캄캄한 인생을 빛으로 밝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나날을 깨끗

이 이겨내고,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머리카락이 많이 나지 않아 가발을 쓰고 다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찬란한 사계절을 맛보며 건강한 두 발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링거 대신 연필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서 씩씩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힘든 시절, 저와 함께 병과 싸우시고, 고통과 슬픔 또한 덜어주신 부모님! 부모님께서 주신 이 생명, 용감하고 씩씩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 따뜻한 등지가 되어주신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손자 성현입니다. 세 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제가 낯선 섬에 떨어져 할머니 품에 들어간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지금 그 낯선 섬은 추억이 깃든 고향 연평도가 되었고, 저의 보호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저로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두렵게만 느껴졌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많이 먹어야 썩썩 크다며 고기, 달걀, 김치찌개 등 매끼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고, 그 결과 초등학교 3학년 때 60kg이나 되는 고도 비만이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만큼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과거의 아픔 따위 툭툭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방한계선 너머에서 날아든 포탄이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날, 저는 그때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와 눈물

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대피소 밖으로 뛰쳐나가시며 “성현이 찾으러 가야 해! 성현이 어디 있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말리는 군인들을 뿌리치셨죠. 다행히 저는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한 상황이었고 저를 보신 할머니께서는 아까의 절박함은 온데간데없이 감추시고 행여나 어린 제가 놀라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한 말투로 안심시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할머니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사춘기 때의 혼란한 마음을 할머니께 다 표출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할머니, 저는 친구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들로 할머니께 화풀이했습니다. 할머니께 반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할머니께서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할머니는 몰라도 된다고 짜증 섞인 말투로 일관했죠. 그뿐인가요, 할머니께서 감기몸살로 심하게 앓아누우셨을 때 먹을 것 사 오라고 주신 돈을 다 써버리고 나 몰라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드셨나요? 저는 편하다는 이유로, 사춘기라는 이유로 세상 하나뿐인 내 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의 저를

# 사랑하는 아빠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죄송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할머니, 저는 편지를 쓰면서 문득 수업시간에 '빈 등지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3년 후면 대학에 입학해 할머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머금은 채 훌륭한 성인이 돼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시기, 많은 사람은 이 시기가 젊음과 청춘을 만끽하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황금기인 그 시간이 할머니께 빈 등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겠죠.

할머니, 이제 저는 할머니가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현이가 될 것입니다. 설사 할머니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항상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성현 · 인천 연평고등학교 1학년 ·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아빠,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에요. 제가 왜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선생님께서 존경하는 스승에게 편지 쓰는 대회가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그때 아빠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빠는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잖아요. 또, 제게 늘 좋은 친구고요. 저는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존경해요. 아빠 딸로 태어난 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같이 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동안 저 많이 변했죠? 키도 훌쩍 크고, 정신의 키도 많이 자랐어요. 나만 알던 예진이 남을 배려하는 아이로 변했어요. 아빠와 많은 책을 읽다 보니 학교에서 발표도,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아빠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아빠는 혹시 늦게 타는 사람들이 다칠까 열림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동네 편의점에 갈 때는 밝게 미소를 지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빠를 보고 배운 거예요. 아빠가 늘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가 봐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한테 늘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것도

그래요. 아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빠가 아니라 친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서는 땀이 계속 흘러요. 그래도 전 덥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작년 여름, 아빠가 농수산물 시장에 저를 데려가셨을 때 아빠가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빠가 회사에 다니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빠는 벌써 이곳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감자나 오이를 옮기며 1년을 일하셨어요. 아빠가 감자나 오이 무게가 20kg에서 25kg이나 된다고 하셔서 제가 상자를 들어 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상자는 바위같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일을 하면서 고지혈증이 없어지셨다고요. 근육도 많이 생겨 건강해지셨다고요. 아빠하고 같이 일하시는 친구분께서는 아빠가 실 때도 책을 읽으신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때야 왜 아빠 몸에서 파스 냄새가 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왜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시고 여름에도 소매가 없는 옷을 입지 않으시는 지도요.

옛날에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가족을 위해 잠도 못 자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랑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속상할 때도 항상 친구같이 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엄마가 되어도 아빠처럼 잘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빠가 멋지게 꾸미지 않아도 저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예진이 아빠니까요. 짧은 편이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아빠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도 도울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교장선생님께

선생님, 지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뵈는 지도 벌써 1년이네요. 어느 선생님께 편지를 쓸지 생각해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저와 우리 개금여중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했는지 말씀드리려 해요. 선생님이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은 처음인데, 우리 예쁜 아가씨들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조금은 느릿하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셨어요.

선생님께서 취임하시고 첫 내신 시험 날이었어요. 저는 3학년이었고, 지망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선 영어 시험에서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필이면 첫날부터 영어시험이어서, 안 그래도 시험 때 유난히 긴장하는 저는 전날 잠도 못 자고 학교에 갔어요. 혹시 배가 아플까 봐 아침도 먹지 않고 교실에 도착했어요. 교실은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반장인 제가 아이들을 통솔해야 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자리에서 쉼 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시끄럽다고 혼이 날 줄 알았어요. 갑자기 털이 쪼뻏쪼뻏 서고 긴장이 됐어요. 다른 애들도 왜 교장선생님이 오셨을까 눈치만 보고 교실

은 조용해졌죠.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시험 날에도 밝은 모습 보니 기분이 좋네요.” 하시며 견과류와 초콜릿을 나눠주셨어요! 이번 시험이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요. 봉지마다 자필로 이름과 응원 문구도 적어주시고 과자 하나하나 손수 포장하신 선물이었어요. 500명 넘는 전교생에게 다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 학교 학생은 모두 이동원 교장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리고 학생 사랑이 엄청나서 밥은 잘 먹는지 궁금하다며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급식실에 들러 “오늘 반찬 어때요, 입에 맞아요? 에어컨 온도는 적당하죠?” 하시며 전교생을 둘러보고 가셨어요. 아,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선생님께서 연극부 미네르바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자타 공인 교내 대표동아리이자 개금의 꽃이라 불리는 미네르바는 학교와 역사를 함께한 연극 동아리인데, 그만큼 연습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전 그 죽음의 미네르바의 부장이었고요. 우리는 대회기간만 되면 밤 11시까지 컵라면을 먹으며 연습했었죠.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퇴근하시고, 연기 강사님과 저희만 남아 연습했어요. 한 날은 발음도, 연기도 어색해서 이대로는 대회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모두 풀이 죽은 채 있었어요.

그 날은 “너희 이대론 대회 못 나간다.”하며 강사님이 가셔서, 저희는 울면서 라면을 먹고 연극 런을 돌리고 있었죠. 8시 인가 9시쯤이었어요. 시간은 가는데 연기가 잘 나오지 않자 부원들 모두 초조해져 누가 건드리면 왈각 눈물을 쏟을 만큼 물렁물렁해져 있었어요. 근데 강당 문이 열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저희 분위기를 보시곤, 상황을 눈치채신 듯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선생님도 연극을 좋아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도전해 보진 못했다고요. 열정을 가지고 밤이 깊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셨지요.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 스스로 채찍질만 하던 상태라 칭찬을 들으니 가슴 밑바닥부터 울컥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가시고 평평 울면서 부원들과 ‘즐거며 하자’ 외치곤 연습을 재개했었죠.

격려에 힘입어 결국 대회에서 금상까지 받았는데 1년이 금방 흘러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장 선생님을 뒤로하고 졸업하는 날이 왔어요. 고민이 있으면 언제나 교장실 문을 두드리던 저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께선 졸업식 날까지 저희를 올리실 작정이셨는지, 한 명 한 명에게 손편지를 써주셨었죠. 제 편지에서 ‘지망하던 학교에 가게 된 걸 축

하해요. 이제 미네르바는 지영이 없어서 어떡하나요?’란 글을 보고 웃음 짓던 기억이 나요. 우리 개금여중의 모든 아이들은 이동원 선생님의 열렬한 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언제든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게 교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두셨던 선생님. 선생님이 있어 제가 이렇게 잘 컸답니다. 방학식 날 찾아뵈러 갈게요.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맞아주실 선생님이 눈에 훤히 보이네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 2

천장에 있던 한 끈을  
끊어주신 당신께

경남 양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김수현

마음 속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께

부산 센텀중학교 1학년 이영수

제 2의 엄마  
임지향 선생님께

서울 동도중학교 1학년 박수빈

매일 왕복 300km  
등·하교를 뒷바라지하는  
고마운 부모님

부산 부산조리고등학교 2학년 장승필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김미미 선생님께

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현정

나의 힐링타임,  
나의 자부심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채예지 (가명)



제가 받은 사랑과

선생님께 답하고 싶은 제 마음은

노래가사로도,

영화의 장면으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 천장에 있던 한 끈을 끊어주신 당신께

백현아 선생님, 2009년 삼량초등학교 4학년 4반이었던 김수현이 선생님의 사랑으로 초·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뵈는 게 5년 전입니다.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뵈길,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처음으로 대인관계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사춘기가 가져다준 뼈뺀 시선, 동생을 향한 질투심에서 시작된 가족과의 불화, 반 친구들의 따돌림. 당시 제 인터넷 검색기록은 자살로 가득했을 겁니다. 일기장은 늘 우울했고, 자기 전 조용히 울다 잠들며 습관적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칼에 시선이 갔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해버린 극단적인 생각에, 제 편은 아무도 없고 그대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을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으로 새길 때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에서 동화책들을 빌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4학년이라 다 컸는데, 웬 동화책?’ 반 친구들의 용성거림 속에서도 구연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한 사람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따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름쯤인가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점심시간 무단외출에 이어, 문구점에서 도둑질로 의심받은 적이 있었죠.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문구

점 사장의 높아지는 언성에도 선생님께서는 친구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덕분에 친구들도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단 외출을 했던 친구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그날, 저는 복도 창가에서 울고 계신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본 날카로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모습은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머리 위에만 빛이 내려오는 듯했습니다.

학예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합창 지휘자에 저와 다른 친구가 지원했을 때였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자!”하시며 저희 둘은 복도로 나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교실로 데려와 신기하게 한 표 차이로 수현이가 졌는데, 합창곡이 두 곡이니 각각 지휘를 한 곡씩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결과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지어냈다는 것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들은 건데, 제 표는 3표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학예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종업식에서 단 한 번도 울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평평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뵈었던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 마음 속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께

저는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왜 감사 인사를 아껴온 건지, 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후회할 선택을 할 뻔했고, 선생님께서는 제 목과 천장을 잇는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공부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보살피는 ‘누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많은 감정과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지난 7년과 앞으로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선생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제 어깨너머에서 편지를 읽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교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그때의 저 같은 친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현아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그 은혜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김수현 · 경남 양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작

매년 스승의 날과 방학 때마다 선생님께 편지를 썼었는데 이번 편지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서지인 선생님을 떠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생님께서 제 마음속의 힘이 많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 전근 가신 학교에서 선생님을 뵈었을 때는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1학년 때 ‘위기탈출 넘버원’ 영상에서 사고 장면이 나오자 무서워서 우는 저를 선생님께서 업고 교실을 나가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선생님께서 업어주신 것도, 안아주신 것도 좋아서 선생님 등 위에서 더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1학년 입학식 전날 학교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학년 끝나고 받은 교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참 슬프게 만났습니다. 학교에 불이 나서 교실도 사라지고 책상 위에 곱게 두었던 책가방도 없어졌습니다. 낯선 학교 강당에서 입학식도 하고 운동장 컨테이너 교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좋았습니다. 문만 열면 운동장이라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생을 함께 한 사이라서 정이 너무 들어버렸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자마자 선생님과 1학년 생활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특히 그때는 일본 쓰나미

의 영향으로 계속 방사능비가 내렸습니다. 4월 즈음이 제일 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컨테이너 생활도 힘들었지만 옆친 데 댈친 격으로 방사능비가 매일 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 힘드셨겠지만 늘 웃으며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넘어서 모두에게 ‘엄마’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 ‘이모’ 하고 부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엄마’의 푸근한 모습 그리고 늘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과 마음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타이르시는데 거부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지요. 특히 1학년 때 여자 돌콩이었던 저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고 중학교에서 수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기장에 늘 답글도 정성껏 꼭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가장 가슴에 오래 남은 답글이 하나 있습니다. 유난히 급식을 힘들어하던 저에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급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일기를 써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수야, 미워서가 아니야. 땅에서 열심히 자란 음식들이 영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너

무 안타까워. 우리 그렇게 해 보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꿈속이라도 꼭 나오고 싶습니다. 가수 박정현의 ‘사랑이 올까요’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대 꿈에 갈 수 있다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난 크게 말할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한다고 그럼 그대도 나 그리울까요.’ 노래 가사 속 ‘그대’는 제 마음속 ‘선생님’입니다! 영화 ‘어저스트 러쉬’의 한 장면처럼 텔레파시를 써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제가 받은 사랑과 선생님께 답하고 싶은 제 마음은 노래 가사로도, 영화의 장면으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2017년, 선생님과 저는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로,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요. 선생님께서 전근 가시기 전날 많이 우셨다는 소식을 동생에게서 듣고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을 뵙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사랑하는 선생님 뵙는 그 날까지 열정적으로 살자고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날까지 선생님, 늘 건강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백만 번, 천만 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 부산 센텀중학교 1학년 ·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작

## 제 2의 엄마 임지향 선생님께

임지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수빈이에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만큼이나 저를 키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 공덕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모두 좋으시지만, 선생님이 맨 먼저 생각나네요. 2학년과 5학년, 2년 동안이나 저를 키워주셔서 더 그러는 걸까요? 졸업 후에도 엄마와 저는 늘 선생님을 떠올리며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종종 말하기도 해요. 동생의 2학년 담임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냥 가족에게 맡기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2학년 2반이 되어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 어리고 유치원생 같기도 했는데, 제가 뭘 잃어버리거나 무언가 여쭙볼 때 방긋 웃어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고개도 끄덕끄덕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고 안심이 되는 게 기억에 남아요. 또, 저는 편식이 심한 편이어서 급식이 나와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조금만 먹고 다 남겼었는데, 선생님께서 늦게까지 먹는 제 옆에 앉으시고 이것저것 손가락에 담아 입안에 넣어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부끄러

운 거였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요. 한편으로 점심시간 동안 제 옆에 남는 것이 귀찮고 힘드셨을 텐데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골고루 먹여주시려 하던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아직도 감동이랍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될 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선생님 반이 된 단짝 민주에게 부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5학년이 되어서 선생님을 다시 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선생님,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5학년 때 휴대폰을 넣어 둔 하늘색 잠바를 잃어버렸었잖아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수업이 다 끝나고 업무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도 저랑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주신 것이 떠올라요. 그때 너무 절망스럽고 눈앞이 캄캄했었거든요. 두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화도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넓은 학교를 구석구석 살펴봐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걱정해 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데 마치 자기 일처럼 직접 나서주신 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건, 선생님께서 제 일기에 달아주셨던 답글이에요. 하루는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주제가 생각나지 않는 거에

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짧게, 동생과 공터에 씨앗을 심었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선생님의 답글에는 떡잎이 언제 나는지, 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정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일기장을 돌려받으면 맨 먼저 선생님의 답글부터 읽어보는데, 평소보다 어설픈 제 일기에 반해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했던 선생님의 답글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냥 저절로 ‘와...’ 하는 소리가 났어요.

또, 언제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믿어주시던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2학년 때 강당에서 발레부 언니, 동생들이랑 리허설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도 다른 선생님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계셨어요. 제가 발레도 아직 서툴고 잘 못 하던 때였는데 선생님께서 무대 위에 있는 저를 보고 다른 선생님께 “제가 우리 반이에요!” 하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 말을 떠올리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떠나 6학년이 되었을 때도 저를 아직 선생님 반 학생처럼 아껴주시고 생각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스승의 날이 좀 지났을 때 꽃바구니를 들고 선생님께 찾아갔는

데, 선생님이 먼저 제가 통통해진 걸 걱정해 주셨던 게 생각나요. 그때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를 친딸같이 걱정해 주시는 진심이 듬뿍 느껴져요. 초등학교 6년 동안 2학년과 5학년 때가 가장 즐거웠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선생님께서는 저의 행운의 선생님이신가 봐요.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또 걱정해 주시는 저의 두 번째 엄마 임지향 선생님!!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제가 어른 될 때까지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매일 왕복 300km 등·하교를 뒷바라지하는 고마운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5월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푸전 레스토랑 일로 매일 새벽이 되어야 귀가하시고, 잠도 부족하실 텐데 늘 저의 아침밥과 도시락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포항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주시지요. 매일 5시간가량의 통학 시간이 때론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도 늘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수영선수로 활동하는 형이 부러워서 배우기 시작했던 수영이었는데, 나중에는 경상북도 수영선수가 되었고 결국에는 메달도 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를 포함해서 2명이 동계훈련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친 저에게 코치님께서 주신 주말 휴가 때 만난 부모님께서 “할 만했어? 힘들지는 않았어? 코치님이 승필이만 울지 않고 꾀꾀하게 다 했다고 칭찬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서 영영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죽어도 가기 싫다며 거듭 말했습니다. 그때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학교에 와서 공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첫 시험을 잘 쳤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공부에 흥미를 잃고 하는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적은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만 늦을 뿐이지 멈추지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며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속상하신 어머니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단 저의 방황에 등불이 되어 주시려고 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체험학습에 가 보자고 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만든 요리를 형이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요리하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난 어머니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요리 체험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 안에서 ‘요리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요리학원에 보내셨고 부산 조리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산에서 하숙을 시작하게 된 이후 부모님께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원도 한 달이나 빠지



며 친구들이랑 피시방에 가서 놀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저녁때마다 군것질도 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지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연락하셨을 때 부모님께서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심하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포항 통학이란 결정만 내리셨습니다.

300km의 통학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잠을 떨치고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칩니다. 하지만, 포항 통학 이후 저의 학교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에서 제일 먼저 등교하게 되었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변하는 나 자신을 만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성적도 향상되고 두 번 만에 중식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4월 가족회의에서 박수를 받았을 때 '인정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방황하고 자신감 없이 지내던 저를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부모님께서 '할 수 있다. 해내고 성취감만 느낀다면 그다음은 쉽다.'라며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응원 문자에 성의 없게 '응'이라고 답장하지만, 늘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부모님, 아직은 어설프지만, 목표도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되고 싶습니다. 300km 통학 뒷바라지해 주신 마음, 성공해서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김미미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2012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있을 때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맡아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고 묻는 말에 항상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제 생각에 초등학교 때 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소극적이지도 않았지만요.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선생님 국어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발표 수업을 했었는데 친한 친구가 저를 지목해 제가 교탁 앞에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떨렸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며 발표를 마쳤고 다음 친구를 지목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현정이 발표도 정말 잘했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보는 눈빛이 아주 진지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엄청난 칭찬도 아닌데도 저는 무척 기뻐요. 그래서 더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친구들을 둘러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기뻐했던 건 아마 학업에서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모습과 태도, 제 존재 자체를 인정받은 느낌이라 그

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저는 다른 선생님께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모습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눈빛이라는 그 소중한 부분을 칭찬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지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출마했고요. 수업시간에도 교내·외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감사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학교 운동회에서 다 같이 춤을 추는 플래시몹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행사를 매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해 앞에서 춤추는 대표에 지원하지는 못하고 매번 뒤쪽에서 열심히 추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실에 모두 있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춤을 매우 잘 추는 친구가 있던데 다들 알고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현정이 춤을 추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 현정에게서 아프리카 사람의 리듬감과 소울이 느껴졌어.” 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나

## 나의 힐링타임, 나의 자부심

요. 그때 친구들은 “오~” 하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속으로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춤을 잘 춘다는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학교에 가서 댄스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3년 동안 댄스대회에 나가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소극적인 학생이었던 제가 선생님 칭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감사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현정 · 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 2학년 · 부산 교육감상 수상작

선생님, 둔덕중학교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선생님이 기억에 또렷이 남아 편지를 드립니다. 2학년 막바지 겨울 방학에 인사 한마디 못 드리고 떠나 죄송했습니다. 늦게라도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안녕 하셨나요, 선생님께서 2014년에 답임을 맡으셨던 1학년 1반의 채예지입니다.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중학생 생활 1년을 무난하게 보내고 나름 만족스러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둔덕중학교에서 후배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여전히 좋은 선생님이요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를 온 후 저는 가끔, 아니 꽤 자주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문법이든 문학이든 학생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는 선생님의 수업이 그리웠습니다. 이사를 오기 전 선생님의 국어수업이 마냥 좋아 수업 전 쉬는 시간이면 ‘아, 나의 힐링 타임이 왔군.’ 하며 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둔덕중학교를 떠나고 대구에서 국어 시간은 예전처럼 유독 기다려지고 설레는 수업이 아닙니다. 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과목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성적도 만족할 만큼 나오던 과목이었는데 흥미도 떨어지고 그에 비례해 추락하는 성적을 보며 상당히 서글퍼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고민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난 국어가 아닌 국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을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의 수업이 그리워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간만에 선생님을 떠올리며 훈훈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제게 참 살갑게 해주셨습니다. 제 성격이 아무리 어둡고 내성적이어도 웃으며 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할머니께도 살갑게 대해주시는 점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선생님을 참 좋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도 학부모 면담이며 참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도 모르고 있던 저의 재능 한 가지를 발굴 해주셨죠. 백일장 글을 읽으시곤 “글 참 잘 쓴다.”라며 칭찬해주셨습니다. 잘 하는 것 하나 없다며 늘 비관적인 생각만 품고 살았던 제게 선생님께서 찾아주신 재주는 저의 유일한 자부심이 되었고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글이 그렇게 잘 쓰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때만큼 제 생각과 심정을 솔직히 써 내려간 경험도 드뭅니다. 지금은 그때만큼 솔

직하게 글을 쓰지 못해 마음에 걸립니다. 점점 빈 종지와 연필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쓴 일기며 조각 글 같은 것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할 테지요.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전 부끄러움이 많고 제 글의 오점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자료로 보여주셨던 ‘김창옥’ 교수님의 세바시 강의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가끔 그분의 영상을 보곤 합니다. 당시에든 지금도 그분의 말씀은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 유익한 그분의 말씀과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해 주시던 말씀은 제 사고와 정서를 빛는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독서를 할 때 선생님처럼 마음에 드는 구절에 열은 밑줄을 그을 때면 마치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순간순간 들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 읽기도 성적관리도 소홀해져 마지막 선생님께 제출한 독후감 수행평가는 하찮고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때 쓴 독후감은 여전히 제 수치이며 선생님께 실망을 드렸던 일들은 제겐 독후감만큼이나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추억들입니다.



선생님, 전 아직 소심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절 아직 기억하실까 궁금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아직 선생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알아봐 주실까요. 아마 알아보시겠지요. 함께 국어를 배웠던 친구들과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그 학교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채예지(가명) ·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 대구 교육감상 수상작

# 3

나에겐 엄마가 1순위예요

인천 신월초등학교 5학년 이희원

선생님의 칭찬 속에  
제가 커가요

광주 매곡초등학교 5학년 손다흠

약속 꼭 지킬게요!

대전 유성고등학교 1학년 강전호

마음속 꽃샘추위를  
녹여주신  
차영주 선생님께

울산 울산중앙중학교 1학년 김민혁

매서우면서도 온화한  
두 갈래 바람

세종 조치원여자중학교 1학년 김령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경기 창현고등학교 1학년 김정선



선생님도 저에게 칭찬과  
사랑, 그리고 용기를 듬뿍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제 마음과 지식이  
한 층 더 올라간 것 같아요.



# 나에겐 엄마가 1순위에요

엄마! 언제 어디서 부르고 또 불러도 자꾸 부르고 싶은 엄마. 그런 엄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7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 혼자서 큰 오빠, 작은 오빠, 저 이렇게 셋을 지금도 사랑으로 키워주고 계시죠? 그런 엄마께서 2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엄마를 이 세상에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밝고 씩씩해야 엄마께서도 빨리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강하게 먹고 엄마를 즐겁게 해 드리려 노력했는데 혹시 실수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아 오히려 화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직도 걱정돼요. 노력했지만 그래도 엄마께 부족한 딸은 아니었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 이젠 어떤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엄마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소원이예요. 저희도 엄마처럼 오랫동안 살다 보면 큰 현실이란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때야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은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늘 즐거운 생각만 하시면서 스트레스받

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를 1순위로 챙기려 하지도 마시고, 엄마의 건강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강한 모습, 밝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도 엄마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엄마를 더 위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넌 노력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보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훌륭한 어른으로 크라고 말이죠. 너무 힘이 나요. 정말 잘해드려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슬플 땐 같이 슬퍼해 주시고, 행복할 땐 두 배로 행복해 주시는 엄마. 엄마께서 하루하루 쉬지도 못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더욱 노력할게요. 매일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간직하세요! 사랑해요.

# 선생님의 칭찬 속에 제가 커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이었던 선생님의 제자 손다홀이에요. 여름이라 그런지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네요. 요즘은 아이스크림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날씨예요. 선생님은 잘 계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전학 온 지 몇 달 만에 새 학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누가 오실지 아주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선생님이나 남자 선생님이 오실까 봐 많이 걱정됐는데 아주 예쁘시고 친절하신 양미경 선생님이 오셔서 좋았어요.

처음 만난 날인데도 선생님께서는 떨지도 않으시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참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시간에 집중하면 가짜 동전을 한 개씩 주신다고 하면서 먹을 것이 잔뜩 담겨있는 작은 뽑기 기계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동전을 받으면 쉬는 시간에 뽑기 기계 앞으로 얼른 뛰어갔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랑 제 친구가 반에 잠깐 남아 있었을 때 선생님 제자였던 오빠들이 와서 먹을 것을 많이 뽑아갔었는데 저랑 제 친구도 같이 먹을 걸 여러 번 뽑았던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 뽑기 기계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아주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잘못해도 다른 반 선생님들처럼 다그치며 화를 내기보다는 친절하게 말로 이야기해주셔서 친구들이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어요.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칭찬과 용기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2학년 2학기 미술 시간에 봄 풍경을 그리는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멍하니 도화지만 보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홀아,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니? 선생님이 도와줄까? 누구든지 잘 못 하는 건 있으니 잘 할 수 있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무척 감동했었어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주신 용기와 칭찬 덕분에 5학년이 된 지금은 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와 채색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도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할 정도예요. 2학기 국어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읽고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라는 주제로 주인공에게 편지를 쓸 때도 첫머리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때도 역시 선생님께서는 저를 격려해주셨어요. “다홀아, 글을 못 쓰겠니? 선생님이 도와줄까? 앞에 조금 도와줄 테니까 뒤에는 그냥 쪽 이어서 쓰면 돼.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또 불러!”라고 해주셨



## 약속 꼭 지킬게요!

을 때 선생님께 무척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5학년이 된 저는 예전보다 그림과 글 솜씨가 더 좋아졌어요. 그건 바로 선생님의 칭찬과 용기 덕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아시지요? 그 책에서는 나무가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그런 나무 같아요. 나무처럼 선생님도 저에게 칭찬과 사랑, 그리고 용기를 듬뿍 주셨어요. 덕분에 제 마음과 지식이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제 꿈이 의사잖아요. 제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환자들에게 선생님이 주신 칭찬, 용기, 사랑, 격려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선생님이 남은 것처럼 환자들의 마음에도 남는 멋진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커서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이 되더라도 선생님께서 주신 칭찬과 용기를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손다솔 · 광주 매곡초등학교 5학년 · 광주 교육감상 수상작

할머니, 할아버지 저 막냇손자 전호예요. 아직도 곁에 계시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6개월을 사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말로 형용하기 힘든 슬픔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셨을 때는 집안의 큰 기둥이 사라진 느낌이, 할머니가 떠나셨을 때는 마음속에서 믿고 의지하던 무언가가 뻥하게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이모 집에 가면 좋아하시던 연속극을 보시며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진호 왔나”며 저를 맞아주시실 것만 같아요. 그리고 항상 무뚝뚝하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할아버지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무심하게 제 앞에 놓아주시며 “많이 먹으래이” 하실 것만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 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하고 형, 누나들이 나름 잘 맞이해 드린다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부족한 점이 많아서 실수도 많이 하고 몸은 몸대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모든 심부름을 마치고 어두운 조문실에서 촛불에 비친 영정사진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엄청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 울겠다고 결심하고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말



이죠. 아마 저도 모르게 두 분께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얼굴도 자주 보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배우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과 위치에도 항상 손자, 손녀, 자식들, 사위같이 손아랫사람이 불편해할까 배려해주시고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나이만 먹고 생각은 성숙해지지 않은 반쪽짜리 어른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몸도 마음도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은 연세에 어린 손자와 손녀 투정도 달게 받아들이시면서 저와 민서를 감싸주시고 따뜻함과 익숙함, 때로는 카리스마까지 보여주시며 저희가 올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엄마처럼, 때로는 엄마보다 더 저희를 아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가족애를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직접 말로 하지 못하고 편지로 전하지만 마음속에서만 담아냈던, 혹은 부끄러워서 다음으로 미룬 이야기들을 하니까 좋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른 주제로 드리고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께 했던 약속 기억하세요?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와, 저와 식구들이 함께 사는 집에 꼭 초대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고 제 곁을 떠나셨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직접 두 분을 모시는 거 대신 첫차를 사면 산소에 찾아가서 두 분을 뵙고, 생전에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외갓집 관리는 제집이라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된 사람에게 생전에 잘할 걸,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걸, 다독이고 위로해줄 걸, 자주 찾아뵙는 걸 등 후회를 많이 해요.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지만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멋진 손자가 되어서 찾아뵙는 것이 더 큰 효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잘 생각한 거 맞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저는 제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두 분도 한번 절 믿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쑥스러워서 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 마음속 꽃샘추위를 녹여주신 차영주 선생님께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설렘으로 3월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2014년 3월 봄은 유난히 춥고 걱정스러웠으며 또 불안했던 신학기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차셨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수술과 항암치료는 제게 너무나도 큰 불안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프신 엄마를 지켜보며 우울하게 방학을 보내고 새 학기를 맞는 저에겐 그 어떤 것도 신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민거리가 바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기와 함께 시작된 엄마의 항암치료로 엄마가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이모 댁에 가게 된 거죠.

저는 엄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알아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체험학습을 간다고 말씀드리기 눈치 보였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은 엄마의 상태를 말씀드리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했고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고민을 알아차리신 엄마는 “어린 너에게 걱정거리를 만들어 주다니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하시며 상담을 신청하셨고 결국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저의 비밀을 선생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선생님이 혹시

안쓰럽게 보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일기장을 통해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글을 읽으며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속의 걱정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편이 생긴 것 같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 소풍 가는 날 엄마께 특별히 과일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과일 도시락을 언제 드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었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혹시 선생님이 부담스러워하시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가 장난을 치며 가방을 옆으로 던져 버리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안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은 내동댕이쳐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일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걸 보는 저의 마음도 가방 속과 같았습니다. 저는 온종일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생각도 나질 않았죠. 그날 저녁, 용기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일기를 썼고 다음 날 일기를 읽으신 선생님께서는 저의 속상



한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주 속상했겠구나! 영망이 된 가방은 괜찮니? 그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야. 다른 과일을 먹은 것보다 마음이 더 달콤하고 흐뭇해.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 마음을 열어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기쁘구나!’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글을 읽는 순간 온몸이 벌꿀 통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달달하게 녹아내릴 것 같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 날의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힘들고 마음이 허전할 때면 그때 선생님과 주고받았던 벌꿀 통(일기장)을 꺼내어 달달함을 맛보며 용기를 얻곤 합니다. 그러곤 생각해요. ‘저에게 햇살같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건강한 마음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을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고 짧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겐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과 손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나눌 줄 아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11살 어린 제자의 춥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셨던 저의 영원한 봄 햇살 차영주 선생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햇살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실 멋진 선생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매서우면서도 온화한 두 갈래 바람

엄마, 아빠, 저 령현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엄마, 아빠께 편지를 쓴다는 사실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공모전을 하니 편지를 드린다는 점이 부끄럽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는 시간도 넉넉하니 엄마, 아빠께 뽀뽀뽀한 글씨지만 편지를 많이 썼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학생이라 그런지 편지 쓸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수행평가에 한 번 시험에 또 한 번 치니까요. 괜히 힘드네요. 표현을 안 했던 제가 더욱 날카로워져도 한결 같이 보듬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령효에게 따뜻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보도록 노력할게요.

노력이란 단어를 쓰다 갑자기 하늘을 봤어요. 지금은 한창 장마철인데 오늘따라 해가 내려요. 나무도 선선히 흔들리니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태풍이 불 듯 매섭게 비가 왔지만, 오늘만큼은 화창해요. 제 노력에 힘을 주려는 징조일까요? 그런 뜻이면 참 좋겠네요.

아빠! 요즘 더욱 바빠지신 아빠의 모습은 제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아요. 충분히 회사 근처로 이사 갈 수도 있었고, 출퇴근이

편리해지니 이사를 해야 했지만 저와 우리 귀여운 동생 령효의 진로 하나만 보고 이곳에 남아주셨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이곳에서 성공해보자.”라고 하셨던 말이 공부하기 싫을 때나 힘들 때 저를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께서는 제 어머니이시며 스승님이시자 친구이십니다. 영리 목적의 직업이 없으셔도 ‘주부’라는 타이틀에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엄마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과외선생님이신 데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쓸 비용을 우리는 아끼고 있잖아요. 제가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이만큼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공이 크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보다도 친근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시니까요.

제가 만약 제 꿈을 이뤄 앱 개발자가 된다면 처음 고객님은 당연히 김현수, 김미옥 고객님의랍니다.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자애를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갚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성인, 중년의 신분이어도 변함없이 부모님을 위해 노력하겠지만요. 갈대처럼 인생의 방향을 아직 찾지 못한 저를 올바른 길로 유도해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시는 엄마, 아빠! 저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온화한 두 갈래의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바람은 갈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단련시

##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키죠. 하지만, 너무 불면 아파할까 조심스레 대답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거대한 아름드리나무처럼 안식처가 되어 보살펴주시고 또 바람으로 가르쳐주시기까지 하시니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편지를 쓰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뺏을 때네요. 더 긴말 필요 없이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건강히 오래오래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지루하셨을 텐데 긴 편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둘째 딸 정선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엄마, 아빠께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엄마, 아빠께 쓰는 편지는 항상 틀에 맞춰 똑같은 레퍼토리 써왔는데 이번에는 틀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고 해요! 잘 들어봐 주세요!

저와 봉어빵같이 똑같아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아빠! 항상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으시죠? 가족을 위해 밤에도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볼 때마다 항상 짜증만 내서 죄송해요. 아빠가 밤에 일하시느라 주말엔 쉬셔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서 죄송해요. 제 짜증 받아주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빠가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제가 내는 짜증을 다 받아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거 다 느끼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지난번에 열심히 택배 일 하는데도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위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아빠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당히 성공

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힘들다는 걸 제일 잘 아셔서 그런지 아빠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를 더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좋은 친구 만나서 잘 지내고 있고 공부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언젠가는 꼭 성과가 나올 거로 생각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엄마한테는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뇌출혈이라는 큰 병을 얻어 한쪽 다리를 잘 못 쓰게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언니,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를 위해 아픈 몸으로 일을 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냈는데도 또 찾아온 암 때문에 엄마가 더 많이 힘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 힘들기도 했고요. 병을 다 치료하시고 나서도 아직 몸이 불편하신데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짜증만 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의 반항으로 더 힘들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한 단계를 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아직도 제가 어리고 엄마를 편하게 여겨 막 대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 많이 도와드리고 행복하게 만

들어 드릴게요. 또 앞으로는 죄송한 일들보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만한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엄마가 저희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미안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깐 미안해하시는 것보다 저희를 보며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는 게 없어서 기회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다고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엄마를 보고 저도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다짐했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가 힘들게 고생하신 거 다 보상받게 해드릴 거라고요.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나지 않게 호강시켜드리겠다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깐 지금 힘든 일들은 다음의 행복을 위한 거로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제가 평소에 좀 많이 부끄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앞으로는 직접 말로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묵묵히 저의 뒤를 지켜주시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엄마, 아빠! 꼭 보답할 수 있는 둘째 딸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 경기 창현고등학교 1학년 · 경기 교육감상 수상작

# 4

이제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경기 통진중학교 3학년 최유미 (가명)

나의 스승, 나의 친구

강원 성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주희 (가명)

나의 수호천사,  
나의 슈주샘

강원 만대초등학교 6학년 유재민

마라톤 42,195 페이지

강원 춘천소양초등학교 6학년 박상민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

충북 충북반도체고등학교 1학년 김태희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유진 (가명)



3학년 때 처음 만난 선생님은

수호천사 같았어요.

온갖 고초를 겪은 동화 속 주인공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수호천사 말이에요.



## 이제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엄마, 안녕. 저 엄마 딸 유미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엄마께 편지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아 좀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앞으로 일 년에 한 번은 편지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5살.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때, 엄마는 부천에, 저와 아빠는 대전 계곡에 있었죠.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던 엄마 목소리가 아직 생생해요. 아빠가 눈앞에서 돌아가신 충격으로 제가 소아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동시에 제 치료 때문에 병원에도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보다 아빠랑 함께한 시간이 더 길다 보니 추억도 더 많아 힘들셨을 텐데... 저 때문에 엄마가 슬픔을 챙기지 못해 그 상처가 더 깊어진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제 우울증 때문에 부천에 있는 회사와 친구들 다 제쳐두고 김포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 오기 전과 후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 우는 걸 종종 보았어요. 그때마다 엄마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항상 엄마보다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매일 제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제가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딸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한테 고맙고 또 미안해요. 아직 엄마의 버팀목이 되기엔 약한 존재라 엄마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도 조금은 컸으니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기대도 좋아요. 엄마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항상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부끄럽니? 꾸며야 할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엄마는 멋있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애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친구가 불편할까 장난쳐 주는 것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자꾸 재혼 얘기를 해도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필요 없다고 할 때 진짜 엄마한테 감동했어요. 항상 받기만 해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앞으로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실 지금 진로도 고민하고 있고 영어 공부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를 끌어주시고 힘들 땐 그늘이 되어주시는 엄마. 하루하루 엄마의 소중함이 늘어갑니다. 진짜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런 생

## 나의 스승, 나의 친구

각만 하면 눈물이 먼저 고입니다. 그만큼 엄마는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엄마. 정말 감사합  
니다. 앞으로 저와 예쁜 추억 쌓고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 더 좋은 딸이 될게요

최유미(가명) · 경기 통진중학교 3학년 · 경기 교육감상 수상작

아빠, 안녕! 아빠 딸 주희야. 아빠에게 편지 써 본 적은 생신 빼고는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생신 편지가 아닌 감사편지를 한번 적어 내려가려 해.

기억나? 내가 어렸을 때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솜씨가 뛰어나서 아빠가 “너는 커서 작가가 될 거야.”라고 했던 말. 나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생생해.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아직 어린 5살 소녀의 재능을 발견해주었더라고 우리 아빠가. 근데 난 그런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작가가 뭐냐며 화만 냈지. 그렇게 화만 냈던 내 모습이 떠오르니까 얼굴이 달아오른다.

아빠가 엄마 이야기에 되게 민감한 거 알지만, 조심스레 해보려 해. 내가 6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잖아. 나랑 언니에겐 참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엄마가 나랑 언니를 두고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지. 그 순간 내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어. 내가 좋아하던 곰돌이 인형도, 아이스크림도 다 필요 없으니 엄마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며 6살 꼬마는 눈 꼭 감고 기도했지.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6년 동안 나랑 언니, 그리고 아빠 각

자 생활이 힘들어도 푹푹 뭉치며 살아왔잖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아빠는 나랑 언니에게 한 아주머니를 소개해주셨어. 그리고 ‘엄마’라 부르라 했지. 솔직히 나는 그때 너무 좋았어. 이제 나에게 또다시 ‘엄마’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더라. 아빠랑 새엄마 사이에 동생이 태어난 후부터 새엄마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어. 그 모습에 화가 난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에게 가버렸잖아. 너무 힘들었어. 기댈 곳 하나 없었으니까. 주말에만 오는 아빠는 내가 왜, 어떻게 혼나는지 몰라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말 못 하고 끄꿍 앓고만 있었지.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만나기도 했는데 아빠가 연락도, 만나지도 말라며 막 화냈잖아. 너무 속상했어. ‘아, 내 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수도 없이 생각했지.

그래도 난 아빠에게 정말 감사해. 생각해보면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한 거 같아. 내가 아빠 닮아서 표현 잘 못 하는 거 알지? 그래도 아빠랑 나는 사이가 정말 좋잖아. 친구들이 엄마랑 데이트하러 간다고 할 때, 엄마에게 고민 상담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부러운 것처럼 친구

들도 내가 아빠랑 사진 찍고 자랑하면 다 부러워해.

요즘은 아빠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어. 새엄마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지, 행복할지는 아빠랑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밤마다 매일 울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나를 소개합니다.’를 얼마나 쓰기 싫었는지 몰라. 선생님이나 내 주위 사람이랑 상담할 때 울면 ‘너 참 잘 컸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데 그럴 때면 뿌듯하고 또 울컥하더라. 이렇게 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빠 덕분이야. 아직도 아기 때 불러주던 애칭으로 부르니까 아빠 앞에선 아기처럼 행동하게 되더라.

필요한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아빠가 우리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에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생활에 만족해. 이렇게 예쁜 딸 봤어? 난 아빠 딸인 걸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 가끔 생각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해지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누구든지 뻔한 위로의 말을 뱌지만, 내게 큰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어. 아픈 만

## 나의 수호천사, 나의 슈주쌤

큼 더 성숙해질 거라고, 곧 불행은 걷힐 거라고 그런 말들을 믿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가 먼저 변해보려 해. 아빠한테 표현하고, 우리 가족한테 한 걸음 다가 가볼게.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 먼저 생각나고,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빠랑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고맙다.'란 말이 짧지만, 기분 좋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늘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마음을 돌려주는 우리 아버지! 감사해요, 존경해요, 축복해요!

우리 맞잡은 두 손 절대 놓지 말자. 사랑해.

김주희(가명) · 강원 성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 강원 교육감상 수상작

선생님 저 채민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저는 중학생이 되고 선생님께서는 다른 초등학교에 계시겠지요. 3월에 문득 선생님께 편지를 쓰다가 말았는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지쓰기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다시 편지를 쓸 용기를 내었어요.

3학년 때 처음 만난 선생님은 수호천사 같았어요. 온갖 고초를 겪은 동화 속 주인공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수호천사 말이에요. 그 당시 저는 왕따 때문에 죽을까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던 시기는 다행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 울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곤 했어요. 그렇게 두 해를 보내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셨지요. 슈퍼주니어 은혁과 이름이 똑같은 선생님을 저희는 슈주쌤이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그해 늦봄, 교내 장기자랑 예선전 때 저희 모듬이 반에서 2등을 했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장기자랑 왕중왕전에 나갈 기회를 주셨어요.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저희는 학예회에도 나가게 되었지요. 선생님은 제가 에이스라면서 조희대와 강당에서 열심히 지도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무대 맨 앞 가운데에서 춤을 출 수 있었어요. 다음 해에도 선생님은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듯했어요.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옛날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잊고 지낼 뿐이지, 지워지진 않았구나. 이 기억이 평생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푼 마음으로 새 학년을 맞을 때, 저는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곤 하였어요. 특히, 6학년인 올해 그 아이들 중 한 아이랑 같은 반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 무척 걱정했어요. 저는 전학 갈 마음으로 담임선생님께 상담했죠.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뒤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반에서 키가 가장 크고 인기 많은 서정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늘 제 가까이 있어 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서정이에게 “채민이한테 잘해줘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서정이랑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인해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따돌리려고 했던 우리 반 여자아이들이 하나둘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두와 사

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이 더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 기억에서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 기억 때문에 괴롭진 않아요. 저 자신을 때리거나 낮추어 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앞에 보일 때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과 같은 중학교에 가거나 같은 반이 되면 어떡하나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다른 어른들은 저에게 “너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두운 얼굴로 있는 저에게 제가 나온 점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채민아, 너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선생님, 저는 위 말고 아래를 보면서 살겠어요. 위를 보면 끝이 없지만, 아래는 끝이 보여요. 해가 비추어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둡다고 하지요. 저도 선생님처럼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누군가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겠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유채민 · 강원 만대초등학교 6학년 · 강원 교육감상 수상작

# 마라톤 42,195 페이지

그리운 전영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4학년 때 선생님 학생이었던 박상민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2년 만이죠? 2년 동안 저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나요? 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독서 마라톤이요. 책을 좋아하는 지금의 저를 만든 건, 독서 마라톤이에요! 독서 마라톤 덕분에 책 속에는 멋진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책을 가까이하게 되었거든요.

4학년 때,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독서 마라톤을 제안하셨죠. 42,195km를 달리면 완주하는 마라톤처럼 42,195페이지를 1년 동안 읽어 보자는 취지였죠. 처음에는 페이지 숫자가 아득하기만 했지만 반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점점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흥분되어 독서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름 방학 때는 한 달 동안 독서 마라톤을 하면서 최고 독서왕을 뽑기도 했잖아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에서 매일 자신이 읽은 책과 쪽수를 기록하면서 반 친구들 중 누가 더 열심히 책을 읽는지 알 수 있었죠. 만화책을 주로 읽던 제가 방학 동안 매

일 동화책 10권을 읽으면서 여름 무더위도 물리치고 책 속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책도 재미있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독서왕도 되고 싶어 열심히 독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반 여름 방학 최고 독서왕으로 뽑혔지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독서왕이 된 선물로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셔서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랑 들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멋진 데이트도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상민이가 독서왕이 된 것도 기쁘는데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니 너무 좋구나!” 하셨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뭔가를 대접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뿌듯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날 효자 노릇을 좀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독서를 진심으로 가까이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라톤을 하듯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매주 교실 문 앞에서 사자성어와 교훈을 외워야만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외우면서 가는 등굣길이 너무 재미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쉽게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인데 책도 많이 읽고 사  
자성어와 교훈을 익히면서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르다 보니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고 배려심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  
고 재미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4학년 때 처음 읽고 6  
학년이 되어서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재미있  
어요. 모두 올바른 독서 습관을 일깨워 주신 선생님 덕분이예요.

저는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로 그때보다 더 활발해지고 친구도 인기  
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 장점을 발견했고 더 용감해졌어요. 선생님은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저에게 가장 잘해주셨고 가장 고마운 선생님입니  
다. 부모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선생님은 저의 재능을 키워  
주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선생님과 공부했던 4학년 때가 그리  
워지네요. 저랑 같이 놀고 공부하고 뛰어놀던 친구들도요. 선생님, 그때  
처럼 4학년 반 친구들과 다시 만나 책 속 인물들 이야기로 재미있는 토  
론을 하면 어떨까요? 꼭 그러면 좋겠어요. 벌써 설레네요. 다른 학교에  
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박상민 · 강원 춘천소양초등학교 6학년 · 강원 교육감상 수상작

#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은선 선생님. 중학교 시절 1학년 1반 실장이었던 선생님의 제자 김태희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편지쓰기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인천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부모님과 동생들은 인천에 남았고, 저만 중학교 때문에 혼자 내려오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많이 불안했어요. 이모가 많은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본질적인 외로움은 해소하기 어렵더라고요. 부모님이 곁에 없으니 많이 방황했어요. 친구들과도 싸우고 왕따도 당했죠. 제 인생에서 14살은 잊히지 않는 해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를 말하자면 지금도 눈물이 먼저 나와요. 친구와 심하게 싸운 후, 친구 부모님이 학교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가 옆에 없으니깐, 엄마랑 같이 안 사니까 저 모양이죠!” 어린 마음에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부모님이 옆에 없어서 많이 불안했는데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친구 부모님께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고, 나쁜 아이는 아니니 이번 한번만 참아달라고 저를 감싸기 바쁘셨죠. 그때 나를 위해 이렇게 힘써 주

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계속 울기 바빴던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단호하게 혼내시며 이럴 때일수록 네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면 선생님과 공통점이 많아요. 관심사도 비슷하고요. 저는 한국사 석차 1등이었고 선생님은 역사 전공이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과 저 모두 1남 2녀 중 장녀고요.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서 그런지 제가 선생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울고 약해졌을 때 선생님께서도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선생님께도 힘든 기억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심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 봤자 그들은 웃는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웃으시던 선생님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중학교 시절, 방황으로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첫 시험에서 97등을 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선생님께서는 많은 애정을 베풀어주셨어요. 위로도 해주시고 직접 편지도 써주셨죠.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저는



300명인 1학년 전교생 중 45등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첫 시험에서 38점이던 수학을 92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뭐든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높은 수학 점수를 받았을 때 선생님이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매년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저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하던 저를 지지한다는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특성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도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와는 인연이 없던 중학교 1학년 꼴통이 입학성적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드리기도 어색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조언과 하셨던 말들을 되새겨요. 제 나침반의 방향을 잡아 주신 지은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부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파견되셔서 자주 뵈는데요. 중학교 때보다 표정 너무 좋아졌다고 칭찬받았

어요. 아주 평온해 보인다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요. 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지금 미래의 예비 명장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꼭 성공해서 먼저 찾아뵙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선생님,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거예요.

## 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손녀딸 유진이에요.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모르시지만, 학교 선생님이 편지쓰기를 권유해주셨을 때 할머니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2살쯤 엄마, 아빠가 이혼하실 때였죠? 오빠랑 저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친할머니 말씀에 할머니께서는 그럴 순 없다며 아프고 구부러진 허리로 저희를 품에 안으셨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철없는 마음에 친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보육원에 안 가서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는 날이면 투박한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찌개 고기는 늘 오빠와 제게 다 양보하시는 할머니. 어린이집 다닐 때 할머니가 머리를 묶어주시면 빠져나왔다고 화냈죠. 할머니의 떨리는 손으로는 그게 최선이란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찾아오신 할머니의 구부러진 허리를 부끄러워했던 저를 용서하세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는데 주름지고 늙은 할머니와 같이 서 있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그

런데 지금은 할머니가 더 나이 드시고 병들어 제 옆에서 계실 수 없게 됐죠. 할머니와 떨어져 엄마랑 살게 되었을 때는 마냥 좋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죠. 가까이 계실 때 많이 찾아뵙길 후회가 돼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요즘은 문득 겁이 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찌지? 나는 할머니에게 해드린 게 없는데. 편지 한 장, 양말 한 켤레 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떤 말로도 할머니가 주신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술하신다고 들었어요. 어제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마취에서 못 깨어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불안해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다시 할머니를 볼 수 있다면 정말 효도할게요. 꼭 다시 웃으면서 꼭 안아주세요. 제가 미용 자격증을 따고 할머니 머리 파마 100번 해드릴 때까지는 건강히 살아계셔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꼭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닭 날개도 사드리고 홍시도 사드리고 동태찌개도 사드릴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던 덥던 제 옆을 지켜주시던 할머니! 이젠 제

가 지켜드릴게요. 늘 제 곁에 머물러주세요.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릴 날이 꼭 오길 바라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유진(가명) · 전북 진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 전북 교육감상 수상작

# 5

## 번호를 정할 수 없는 0순위

전주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3학년 장효인

##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전북 송천정보통신학교 3학년 이병주

## 인생의 멘토

전남 광양백운고등학교 2학년 송수하

## 빨간 분필, 파란 분필, 노란 분필, 흰 분필

경북 경북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임유정

## 마흔 넷 나의 친구

경남 정촌초등학교 6학년 이지호

## 네가 하고 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제주 대정중학교 1학년 박수희 (가명)

선생님께서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 삶을 이해해주셨습니다.



# 번호를 정할 수 없는 0순위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의 0순위 예쁜 딸 효인이에요.

전에 엄마에게 ‘1순위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효인이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웃으시며 “효인이는 번호를 정할 수 없는 0순위.”라고 하셨죠.

엄마! 엄마 딸이 된 지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제가 세 살 때 보육원으로 아빠, 엄마, 언니가 처음 찾아오신 날을 기억해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낳아준 엄마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왜 저를 보육원에 보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럼 엄마는 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저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사랑하는 엄마, 그동안 참 많은 추억이 있었죠? 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뜻깊어요. 그중에서도 지난여름에 저랑 엄마, 아빠랑 여수 아쿠아리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케이블카도 타고 레일바이크를 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만화처럼 그려지네요. 저는 그때 ‘아,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꼈어요. 저는 엄마, 아빠와 산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엄마께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워계신 외할머니를 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엄마 딸로 예쁘고 바르게 자라서 효도할게요. 제 효도 오래오래 받으실 거죠? 엄마 사랑해요.

#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저는 싫어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버지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가 다시 바뀌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글로 적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각종 질병까지 앓고 계셨는데 이런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욕과 폭행으로 긴 세월 동안 괴롭히고 상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내시겠다고 욕하면 욕 듣고 때리면 맞고 괴롭히면 당하고 상처 주면 상처받고 긴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저를 아버지 없는 아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폭행하시는 모습만 보고 크다 보니 제게 아버지는 나쁜 사람,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점점 심해졌고 어머니

계선 끝까지 버티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영원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두고 먼저 떠나신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난 이유를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속박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았고 저도 그것들을 모두 보고 자랐기에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편히 쉬시라고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제가 싫어했던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살기 싫고 같은 공간 속에 있지 못할 것 같았던 저는 그 순간부터 가출했습니다. 가출하면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지금껏 아버지의 폭행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친구들을 불러서 폭행하고 갈취까지 하면서 가출 소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출을 한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갈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발걸음과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저를 데리러 경찰서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되풀이되면서 분류 심사원

이라는 곳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점점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안 좋은 길로 가자 처음엔 폭행하고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더 싫었던 저는 더 방황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도 뭔가를 깨달으셨는지 상냥한 말투와 좋은 인상으로 저를 타일러 주시고 그렇게 매일 입에 달고 사셨던 술도 단번에 끊어버리시더니 저를 위해서 온 동네방네를 뛰어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펄펄 우시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정말 많이 바뀌었고 노력하시는구나!” 이후로 저도 아버지와 더 가깝고 좋은 사이로 지내기 위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덧 손을 잡고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사랑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평범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와 저의 노력이 합해져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중간에 포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버텨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슬픔과 실망과 아픔을 드리는 아들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멋지고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다시 서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인생의 멘토

안녕하세요. 선생님! 놀라셨죠? 송수하입니다. 공모전의 주제를 보고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저의 옛날 이야기와 함께 제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쓰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하면서 첫눈에 반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3년간 짝사랑할 만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창현이라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항상 수업이 끝나면 이창현 반 앞으로 달려가 얼굴을 보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창현은 태권도부였는데 태권도에 집중하고 싶다고 항상 저를 밀어냈어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부모님께 미안했나 봐요. 그런 창현이가 어느 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왔어요! 저랑 제 친구들, 선생님들까지도 열심히 축하를 해주셨죠.

2015년 4월 7일, 개교기념일이었어요. 사건의 그날이기도 해요. 학교에 안 가는 날인데 1학년 애들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한다고 전교생이 학교에 갔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헬레벌떡 반에 들어와 2층에서 누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많이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피가 난다고 하는데

다 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 이창현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머리로 떨어지면서 심하게 다쳤다고 정말 수술이 엄청 잘 돼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현이가 누워있는 5일 동안 저는 밥도, 잠도 제대로 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일이 지나고 창현이는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창현이 덕분에 5명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저의 담임선생님이셨던 안병훈 선생님께서는 제가 울 때 손잡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학교가 끝나면 저와 함께 항상 창현이의 곁을 지켜주셨죠. 창현이 담임선생님께서도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죠. 창현이는 어딜 간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숨어 있는 거라고 네가 꿈을 이룰 때 반짝하면서 나올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창현이 대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일기장에 엄마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 같다고, 저에게 양보만 바랐던 건 아닌지 미안한 마



음이 든다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인생 이야길 해주시는 데 ‘정말 목표가 뚜렷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수업시간에 귀여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을 경청해주어서 행복하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집에 자랑도 했어요. 슬플 땐 선생님이 써주신 말을 보면서 울기도 했고요. 지치고 슬플 때면 가끔 선생님 반 앞까지 찾아가는데 말할 용기가 없어서 돌아오기도 해요. 저는 창현이처럼 위급한 상황의 사람을 더 살리고 싶어 간호사나 의사를 꿈꿨는데 진짜로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방황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모두가 이렇게 고민한다며 늦지 않았다고 천천히 찾아봐도 된다고 하셨을 때 진짜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아는 것이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수업을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선생님을 떠올리며 공부 열심히 할게요. 포기하려던 저를 붙잡아주셔서

서 정말 감사해요. 1학년 때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별써 고등학생 시절도 절반 밖에 안 남았어요. 나중에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친구들이 먼저 생각날 때도 있지만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는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학창 시절의 스승이 아닌 제 인생의 스승, 멘토입니다. 선생님은 잠깐 스치는 인연이 아니라 계속 마주하고 싶은 인연이에요. 선생님이 지금의 선생님이 되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좋아요. 나중에 성공해서 정식으로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빨간 분필, 파란 분필, 노란 분필, 흰 분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3학년이 된 1학년 때의 제자 인사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죄를 사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자습실을 나와 학교의 어두운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교실에서 분필 네 자루를 훔쳤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변명 몇 가지를 늘어놓으려 합니다. 작은 제 양심이 고하는 이야기를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은 빨간 분필만큼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먼지 사이에서 홀로 책장과 무수한 책들을 정리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새로 문을 연 도서관에서는 직접 말리고 응원의 문구를 적은 꽃 책갈피를 나누어 주셨죠. 한창 힘들던 제가 선생님께 받은 책갈피의 문구는 ‘힘을 내요, 절대 강자’였습니다. 짧은 문구 한마디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펜 끝에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나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책갈피는 제가 소중한 책의 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파란 분필에 담긴 바다만큼 마음이 깊으셨습니다. 저희에



게 성적으로 꾸중을 내는 대신 저희를 믿어 주셨고 노력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언젠가 집으로 발송되는 성적표를 뜯어보았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성적표와 함께 선생님께서 손수 쓰신 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을 위해 손수 쓰신 편지를 성적표와 함께 보내셨죠. 모든 학생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러니 보다 헤아려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시라는 편지를 붙잡고 영영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를 읽고 부모님께 저도 편지를 써서 드렸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선생님은 노란 분필을 닮은 봄이 떠오르는 분이셨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봄, 학교를 바라보며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나누었던 대화는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제 삶을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밥 한술 못 뜨고 괴로워하는 저를 위해 급식실에 함께 가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선생님은 ‘멸치볶음’을 제게 덜어 주셨지요. 저는 아직도 그 반찬이 나오면 밥을 한 움큼씩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밥을 먹지 못 한다고 선생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생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조금이라도 밥을 먹이려는 선생님 마음이 너무 따듯해서 저는 이제 밥을 거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흰색 분필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을 위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미용실에 가는 일이 있으면 “꼭 머리가 묶일 정도로 해주세요.” 하고 머리를 자르곤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다니지만 소심했던 1학년 때는 그러지 못했지요. 얼굴에 드리운 머리카락은 당시 저를 더욱 소심해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걸 보신 선생님은 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머리 묶고 다녀볼래? 더 예쁠 거야!” 하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친구들이 “너 요새 밝아 보여.”라고 했을 때 그제야 선생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로 가시고 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필들을 닮은 선생님은 항상 수업 전에 커피를 들고 오셨습니다. 커피는 수업을 거의 마치고 나서 드셨지요. 분필 가루가 잔뜩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선생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희를 위해 아침마다 빗자루로 분필 가루를 쓸어내리는 선생님인데, 분필 가루를 가장 많이 들이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에 색 별로 꽂힌 그 분필을 그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쯤은 ‘분필 커피’를 마시지 않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처 다시 돌려놓지 못한 그때의 분필을 손으로 문질러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묻어나는 분필 가루는 학생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겠다던 선생님의 열정과 비레한다는 사실을요.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손때 묻은 답지처럼 저도 선생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제자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 떳떳하게 다시 빗기 위해 염치 불구하고 사과문을 올립니다.

# 마흔 넷 나의 친구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호예요.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고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을 찾아다니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마음에도 여름이 들어왔나요?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를 썼던 때가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항상 바쁘셔서 엄마와 친구처럼 놀았던 게 가끔 생각나요.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책도 읽어주시고 색종이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공룡도 만들어 주시고 피아노, 사과, 하트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로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제가 가기 싫다고 해서 엄마랑 부루마블이랑 만들기를 온종일 했던 것도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로 엄마가 친구보다 더 좋았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랑 만들기 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여전히 저랑 대화하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고 스마트폰으로 혼자 노는 것이 더 좋아요. 어느 날 엄마가 “옛날 너의 모습이 그리운데 휴대폰을 조금 줄이고 엄마와 대화 좀 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 내 친구 엄마는 다 회사에 다녀. 엄마

도 일해.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때야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스러워서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엄마랑 저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아빠가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호야 너는 우리 집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어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를 아주 특별하게 키웠단다. 한 번 감기가 들면 5일 동안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엄마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간호하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지 않았단다. 네가 어릴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엄마가 다니고 싶어 하던 대학원도 포기하고 일도 그만두었는데 네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아빠는 속상하구나.”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동생을 낳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싫다고 해서 포기하신 것어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이고 저랑 놀아주는 친구라고만 생각했었나 봐요. 언제나 제가 손을 내밀면 달려오는 절친 같은 친구 말이에

# 네가 하고 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죄송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눈이 한 번씩 찌를 듯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가까이 있는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보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네요. 엄마는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 바로 병원에 갈 준비를 하시는데 말이죠. 엄마는 항상 젊고 늙지도 않고 제 옆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엄마! 저랑 병원에 한 번 가요. 제가 엄마 보호자 역할을 해 볼게요. 엄마 눈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에게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게요. 또 힘들겠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도 줄여보겠어요. 저의 다짐이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요.

엄마!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다투고 나서도 항상 먼저 웃는 얼굴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저도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은 옛날의 지호처럼 엄마랑 온종일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만들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만나요.

이지호 · 경남 정촌초등학교 6학년 · 경남 교육감상 수상작

안녕하세요. 날이 무더운 오늘입니다.

모든 분의 건강이 걱정될 만큼 더운 날씨네요. 저는 오늘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비교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눈물을 삭힌 적도 많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것은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저를 보호해주신 선생님들과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펠던 제게 조언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못해 분명 예의에 많이 어긋났을 텐데도 그 모습을 애정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수도 없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이 민망했어요. 학교에 다니지 못한 저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어 너무 행복했고 기뻐합니다. 어렵고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 힘들 역시 제게 득이 되었기에 너무나 값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제게 도움을 주시고 아버지 찾는 일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자원봉사로 공부를 가르쳐주시는 미술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가능성을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를 돌봐주시는 미리네 집 시설 선생님들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정돈이 몸에 배지 않아 뒷정리를 해주실 때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정리정돈을 습관화해 볼게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담임선생님! 사실 저는 담임선생님이 제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섭섭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아득한 미래만 생각하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 편지에 쓰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아빠하고 여관을 전전했어요. 어쩌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청 특별조사반 덕분에 발견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미숙했던 제가 올해 남녀공학 중학교에 입학하여 평균 96점 받았을 때 원장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희야 넌 천재야 지금처럼 성실하게 네가 하고 싶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야.”

# 6

## 일상을 꿈꿔요

서울 꿈타래학교 3학년 최예원

##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게요

경남 박하린

## 응원의 망고주스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소담

## 꽃길만 걸어요

인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정희주

## 선생님의 마법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부산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성은정 (가명)

## 저에게 하신 투자 꼭 돌려드릴게요

서울 상계고등학교 1학년 문태원

선생님처럼 저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북극성이 되어주고,



밝게 빛나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빛을 나눠줄 거예요.

## 일상을 꿈꿔요

안녕하세요. 어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 예원이에요. 선생님과 이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사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네요.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사실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많았어요. 결국, 저는 제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말 중 한 가지도 당신께 드린 것이 없네요. 그게 참 후회가 돼요. 그런데 이제라도 당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 중에 하나라도 당신께 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소 사람의 마음은 말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배웠나 봅니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제게 당당한 여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가 용기 있는 여성으로 자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어찌면 다른 친구들보다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일 년 전 열여덟 살이었던 저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던 아프고 무거운 삶을 힘겹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죠.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오빠와 아버지의 성폭행과 어머니의 학대를 보고도 제 주위 모든 어른은 저를 외면했고 누구도 상처를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학대 받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아직도 외롭습니다. 험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더군요. 이제는 아무리 처한 상황이 억울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는 것 같아요. 열여덟 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고서야 겨우 제 말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뵈게 되었어요. 그 또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에 좋은 날이 온 것이라면 그게 사람 사는 방식이겠지요.

당신은 제가 얼마나 여러 날을 아프게 보내야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로, 비교가 안 되게 제 인생은 잔인하리만큼 비참하고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열여덟 살이 된 작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죠? 꿈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그저 강간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 사는 일상을 '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런 일상은 제 삶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사는 그 당연한 삶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는 그 깨끗한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어머니께 맞으며 어른들의 방관 속에서 아버지와 오빠의 성 상대가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되도록 당신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해 주



셨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이 저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진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감옥에 들어가셨고 지금은 어머니와 오빠를 상대로 재판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불안합니다. 모든 성폭행 피해 여성들께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도 이 행복이 정말 내 것이 맞는지, 이리다가 또 과거의 상황들이 나를 덮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럴 때 저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이게 내 팔자야.’ 하고 살아갈까 봐 무서워요.

요즘 들어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사람 사는 건 절망과 극복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마음을 감히 나눌 수 있는 날도 오는 거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일하며 봐온 아이 중에 저는 그저 당신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된 폭력피해 아동일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당신을 거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살 수 있었다고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진 선생님

#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게요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메마른 땅에 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름이 도착했다는 증거가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저는 조금 놀라곤 해요. 벌써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어젯밤 자기 전 맨얼굴로 거울을 봤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 작년보다 키도 조금 큰 것 같고, 얼굴도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스승의 날, 학교에 찾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하루를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낼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드려요.

며칠 전, 검정고시 원서를 쓰러 교육청에 갔어요. 원서 제출에 필요한 제적 증명서에는 제가 자퇴한 날인 ‘2016년 10월 27일’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세상에 벌써 8개월이 지났구나.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간은 정직하게 1분, 1초가 흘러가고 있었네요. 저에게 이 세상은 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포기한 채, 흐릿한 목적지를 향해 쉬지도 못하고 무작정 나아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친구였지만, 뒤돌아서면 서로 모른 채하기 바빴어요.

많은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저를 그냥 방치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다가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로 겨우 하루를 버텨 나갈 때.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서 자신만 자책하기 바빴던 저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정말 소중한.”라고 말씀해주신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런 예쁜 말들이 과분하다고 생각했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의 문을 열 수록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나지 않았고, 여기서 더 나아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에 무너지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조금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재밌고 행복하게 살기로요. 그렇게 전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퇴하기 전날,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게 두렵



기도 하고 앞으로가 아주 무서웠어요. 또, 자퇴하는 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안아주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떠나지 말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느껴지는 바람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냥 높아 보이던 하늘에 뜬 구름을 오늘만큼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제가 커다랗게 느껴졌어요. 혼자서는 이런 결심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던 그때, 같이 이야기할 친구도 하나 없었을 그때, 선생님은 제 단짝이자 엄마였어요. 작은 생채기부터 큰 상처까지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원래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불품없고 작아 보여서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누구보다 거울 보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사진에 담긴 내 모습이 너무 해맑고 즐거워 보이거든요. 전 이제 재밌게 살 줄 알아요. 우울할 땐 더는 그걸 속으로 감추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알아요.

지금 제 목표는 ‘빛나는 사람’ 이예요.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저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북극성이 되어주고, 밝게 빛나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빛을 나눠줄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 절 지켜봐 주세요. 꼭 그렇게 될 거니까요. 늘 고맙습니다. 항상 보고 싶어요. 다음에 꼭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 응원의 망고주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소담이에요. 선생님께 저는 어떤 제자였나요? 시간이 훌쩍 지나, 지금은 제 담임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직도 교실 문앞에만 서면 선생님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요. 부끄럽게도 저는 1년 내내 지각을 밥 먹듯이 했었군요. 첫날 지각해서 밖에 나가 있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교실 안보다 밖에서 인사드리는 날들이 더 많더라고요. 선생님께선 그때마다 지각하지 말라고 웃어주셨죠. 선생님, 사실 저는 지각한 저를 꾸짖으러 나와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답니다. 선생님께 마냥 게으른 학생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오늘 버스가 막혔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해주시는 애정 어린 말들 덕에 1년 동안 등굣길이 즐거웠어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내세울 건 활발한 성격밖에 없는 제가 부회장 선거를 나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소담이는 성격이 좋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고요. 생각해보면 산만하고 덜렁거리는 저는 좋은 부회장감이 아니었는데도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부회장을 하며 아이들에게 신뢰도 많이 받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직진뿐

이었던 저의 삶에 옆으로 가는 법도, 때로는 쉬어가는 법도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공부도 못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제 진로 상담 날, 선생님께서 망고주스를 쥐여 주시며 하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험 성적표를 받고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였을 때, 선생님께서 너는 끼가 많은 아이라고, 나중에 꼭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때 사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요즘도 제 최대 고민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미래와 진로, 학업이지만 그날 이후로 절 한심하게 생각하는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주신 망고주스 덕분에 다시 기운 내서 활발한 소담이로 빨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선생님께선 제가 연극을 하는 걸 한 번도 빠짐 없이 보러와 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연극부를 들어오면서 잘 안 풀리는 연습 때문에 기운 빠지는 날도 많았는데, 무대 위에 서서 소담이가 아닌 연극부 부원으로서 저를 바라봐주신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 제 연극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네요. 어땠나요? 선생님, 저 연기 잘하던가요? 무대 위에서의 저는 행복해 보였나요? 제

## 꽃길만 걸어요

무대를 보며 ‘완벽한 제자 김소담’은 아니더라도 ‘자랑스러운 제자 김소담’ 즈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걱정과 달리 고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 중입니다. 중학교 때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선생님께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겠지만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진심 어린 말들을 빠짐없이 다 이해하려고 아직도 노력 중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 편지로 조금이나마 제 진심을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꿈을 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그렇다 할 꿈이 없지만,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어 선생님께 꼭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어요. 그때, 꼭 선생님께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랑스러운 제자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사랑합니다.

김소담 ·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2학년 · 교원상 수상작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힘들고, 지쳐서 걷지도 못하던 저를 품어주시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셨던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아직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친구, 가족 관계 그리고 진로 고민 등 어깨에 지고 갈 짐이 많아 눈물 흘리던 제게 달콤하고 쓰린 위로를 주신 당신께 존경의 무릎을 꿇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제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이겨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개가 없기에 사람은 나는 법을 찾은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구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 장애물에 부딪히며 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3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를 정할 때 인문계에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와 어머니께 부담이 되기 싫어 어렵게 영종 물류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강화에 살고 취업 때문에 미디어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께,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이곳 영종도가 제 힘으로 꿈을 펼치기 위한 도약이 될 거라고요.

낮선 환경과 친구들 모든 것이 두려웠고 사실 지금도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때마다 꼭 참고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하고 또 믿으며 학교생활 중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도 ‘친구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곳엔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기댈 곳이 없다 보니 상처만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에 이겨내려 하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무너지지만 앓고 제 자리를 지켜가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화에 하루 정도 있었어요. 학교에 갔지만, 선생님을 못 뵈고 다시 올라와서 슬프고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뵈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할 것도 많아서 힘듭니다. 뭐든지 선생님 품에서 알아가다가 그 품을 벗어나니까 주위가 다 가시덤불이네요. 가시덤불 사이를 비집고 상처를 내며 나아가는 기분이예요. 슬퍼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주저앉아서 잠깐 울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언제나 하늘에는 밝고 짙은 햇빛만 비출 수 없겠죠? 가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야겠죠? 이렇게 비 올 때면 우산이 되어주시고 바람이 불면 따뜻한 옷이 되어주시는 당신께 이젠 제가 우산이 되고 따뜻한 옷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서로 ‘꽃길’만 걸어요. 마침표를 찍지 말아요.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요.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 멀리서 보면 희극이니깐요. 언제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내일도 감사합니다.

정희주 · 인천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1학년 · 교원상 수상작

# 선생님의 마법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저에게 선생님은 그저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인생 상담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고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 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4학년 때 몇몇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앓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폭행과 폭언이 점점 심해져 결국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거부할 수도 없는 가해 학생들의 억지 사과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싫었던 시간은 급식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 번호 순서대로 앉으면 양옆 남자아이들이 저를 때리고 먹는 모습이 역겹다며 욕을 하고 간식으로 나온 주스 등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저 남자아이들 장난이 심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ですよ. 그렇게 저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선생님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웃고 말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편을 더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류가 없었거나 제가 정말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생님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학생 중 한 명이 되고 1년 뒤 이름을 말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 유명학생으로 중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친했던 친구 모두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친구들과는 마음이 잘 맞지 않아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제 마음을 유일하게 터놓을 수 있었던 단짝도 학교가 달라지니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선생님에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꾸역꾸역 참으며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 영어 선생님 중 젊고 예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유머도 많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모든 아이가 그 선생님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로 때문에 영어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란히 앉

아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이 힘들던 일이건 다 말해봐! 선생님이 들어줄게!” 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눈물을 막았지만, 선생님은 도리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울어도 된다고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서 먼저 눈물을 흘린 것, 그리고 그제 받아주시는 선생님. 적어도 제가 살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께 그동안 힘들었던 일, 말하지 못했던 진심 등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제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며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들었던 격려의 말은 살면서 다른 선생님께 들었던 말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울고 털어놓은 뒤 저는 무언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가둬 두었던 유리 벽을 깬 것 같이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몇몇 선생님들은 믿음이 가지 않으며 제 이름을 부르실 때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나 영어 선생님 한 분만은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제 이름

을 불러 주실 때마다 소중하게 아껴주시는 기분이 듭니다. 영어 선생님의 위로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있던 저를 서서히 바꾸었고 그 마법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 주신 안선영 선생님! 누군가에게 편하게 기대는 법을, 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다시 힘내볼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사랑합니다!





# 저에게 하신 투자 꼭 돌려드릴게요

무더운 여름날, 책상에 앉아 수학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면 어김없이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3월, 수학 첫 수업시간. 처음으로 만난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열정이 대단해 보였고 아이들과 정말 잘 어울리셨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은 너무 좋았지만, 전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학이라곤 몸부림치던 저를 공부하게 해주셨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할 무렵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2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위로는 누나를 두고 동생이지만 오빠 노릇을 해왔고 밑으론 동생 두 명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뒷바라지해왔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은 맞벌이하셨고 이런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평소 담임선생님과 친분이 있으셨던 선생님께서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제 가정환경을 알게 되셨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감정이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제 속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 모두가 내게 의지하고 있어서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진심을 표현할 사람이 생겼고 이 상황을 견디고 헤쳐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고등학교 입학울 바라보며 저에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셨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고등학생인 누나를 보니 학비가 너무 비싸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때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과 후에 교무실로 저를 부르신 선생님은 제게 안부를 물으시며 고등학교를 정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표정이 어두웠고 아직 결정은 못 했지만 두 곳 중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등록금이 비쌀 거라며 내가 지원해 줄 테니 일단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리라고 거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친절하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도움도 많이 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은 너무 부담스럽고 받기 죄송스러웠

습니다. 하지만, 고생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게 선택을 맡기셨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제 선택과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가 부담스러울까 봐 망설였다. 나는 네가 세상엔 누군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제법 있다는 걸 알면 좋겠구나. 그게 바로 사회란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꼭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려드리겠다고. 그러자 선생님은 “아니, 반드시 내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 난 단지 너에게 투자한 거로 생각하마.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렴. 어른이 돼서 성공하건 그렇지 않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선생님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에게 하신 투자 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멘토이자 롤모델, 그리고 목표이신 신창중학교 윤종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문태원 · 서울 상계고등학교 1학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상 수상작

# 7

## 카반다나 선생님께

르완다 G.S 자바나 중학교 1학년 엘리세 시우사

##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

남수단 Kuggi 유아원 초등학교반 제니퍼 아르나토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 카반다나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께서 제가 6학년 때 저에게 해주셨던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중 가장 감사한 건 제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지 고민했을 때 격려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공부가 저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학교에 초대하셔서 저와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것이 제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그 동안 많은 것을 놓친 것 같아서 후회돼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늘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께서는 제 부모님처럼 제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세요. 선생님께서 G.S 자바나 학교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을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정말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집을 나가 길거리에서 지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선생님이 더

똑똑해지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Elyse CYUSA 올림.

Elyse CYUSA (엘리세 시우사) · 르완다 G.S 자바나 중학교 1학년 · 우수상 수상

#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선생님

선생님께.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보내요.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먼저,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베풀어주신 일들에 감사드려요. 1학년 때 저는 저는 숫자를 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수학도 할 줄 알고 영어로 읽고 말하는 것도 잘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학교에서 잘 지내서 정말 기뻐해요. 모두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쓰는 것에 굉장히 서툴렀던 제가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선생님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해요! 또, 선생님들께 배우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Jennifer Arnato(제니퍼 아르나토) · 남수단 Kuggi 유아원/초등학교 반 · 우수상 수상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가도록 돕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스스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꿈꾸는 아이들과 동행합니다.



